빠르고 편한 길 IT에 물어봐

담양군 대전면 부모님댁에서 추석(9월22일~26일)을 쇨 회사원 하영준(30·서울시 강서구)씨는 지난 2월 설 연휴 때처럼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포털사이트 '로드 플러스'(www.roadplus.com)를 이용, 빠르고 편한 귀성길에 나설 계획이다.

하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17일 '로드 플러스'에 접속, 귀성길 찾기에 나섰다. 서울시 강서구 견인차량보건소에서 담양군 대전면까지 총 거리는 308.38㎞, 예상소요시간은 5시간22분. 경부고속도로의 소통상태는 비교적 원활했다.

그러나 장성 백양사 부근에서부터 밀려, 서광주 톨게이트까지 1시간 30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씨가 선택한 길은 백양사IC를 빠져나와 지방도로를 이용, 장성을 거쳐 집으로 가는 것. 하씨는 또 틈틈이 휴대전화와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파악하거나 노트북 컴퓨터로 무선랜에 접속해 최단거리를 확인, 4시간20분 만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로공사·이통사, 내비게이션·휴대폰·무선 인터넷으로 실시간 교통상황 중계

첨단 정보기술(IT·Information Technology)의 생활화로 '고향 가는 길'이 쉽고 편해졌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해 자료를 주고 받음)를 잘 이용하면 빠르고 편한 귀성·귀경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7일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5일로 지난 설 3일에 비해 비교적 교통체증이 덜할 것이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귀경 차량은 총 341만대로 지난 추석연휴 329만4천686대보다 3.5%가량 늘 전망이다.

서울~광주 구간 귀성 최대 소요시간은 버스기준 5시간30분(승용차 기준 7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시간에 비해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귀경시간도 버스기준 7시간(승용차 기준 8시간20분)으로 지난해보다 30분 줄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공하는 '로드 플러스'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등 첨단정보기술(IT)을 이용한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늘면서 귀성·귀경길 시간도 단축되고 있다. 〈KTF제공〉

귀성·귀경 차량이 느는데도 시간이 단축된 것은 '로드 플러스'를 비롯한 자동 항법 장치(내비게이션)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등 '유비쿼터스'를 이용한 '빠른 길 찾기' 서비스 이용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공은 지난 2004년 1월1일부터 여행객과 귀성·귀경객 등을 위해 운전자의 위치에 맞는 가장 빠른 길과 소요시간, 지·정체 구간, 소통상황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로드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공 홈페이지에 게재된 '로드 플러스'를 클릭하면 플래시 지도에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통상황이 권역·노선별로 자세히 나타나며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주요 도시 간 경로별·고속도로 간·고속도로와 국도 간 비교정보를 알 수 있다.

올 들어 지난달 31일 현재 '로드 플러스' 이용건수는 총 390만건으로 지난해와 2005년 같은 기간 325만건과 275만건에 비해 20%와 41.8% 증가했다. 해마다 '로드 플러스' 이용자 수가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게 도공 측의 설명이다.

차량 자동 항법 장치(Car navigation system·내비게이션)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등을 이용한 '빠른 길 찾기' 서비스도 단연 인기다. 전국 등록 자동차는 1천500만대로 이 중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차량은 250만대에 달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추산이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출발 전 목적지 주소나 전화번호를 누르고 최단·최적 경로를 입력하면 안내 방송을 들으면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수신기가 장착된 내비게이션에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와 뉴스, 날씨, 사고 정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노년층에게 단연 인기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길 안내 서비스도 있다. '폰 내비게이션'은 사용자의 요청대로 특정 지역의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텔레콤의 '네이트 드라이브' KTF의 'K웨이즈' LG텔레콤의 '텔레매틱스' 등은 운전자에게 최적 경로와 도로 위험정보 등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다. KTF는 휴대전화를 통해 전국 고속도로와 정체구간의 CC TV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또 KTF '방방곡곡 길 찾기'를 이용할 경우 내비게이션 전용 휴대전화가 없어도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고객의 위치에서 주요 지점이나 도로를 통해 목적지 경로와 지도를 검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즐겁고 여유로운 길
고속도 휴게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귀성행렬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휴게소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고향 가는 길이 훨씬 즐겁고 여유있는 여행이 될 수 있다.

◇교통정보 제공하는 휴게소=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142개.

이 중 호남고속도로 정읍 휴게소(상·하행선)는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 운전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 센터에는 인터넷 사용 및 팩스 수·발신과 문서출력, 휴대전화 충전서비스와 고속도로카드 판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읍-비즈니스센터 개설
고창-로봇 경진대회 개최
백양사-생수 등 무료제공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다양한 편의시설, 건강 체크=호남고속도로 벌곡 휴게소(충남 논산)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휠체어와 목발 등을 마련해 놓았다. 장거리 운전으로 쌓인 피로를 풀도록 평행봉과 철봉 등 운동시설도 갖췄다. 연고 등 간단한 구급약과 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당뇨측정기, 안경세척기도 비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소 이벤트=서해안고속도로 고창 휴게소는 22일 '로봇 경진대회'를 열고 참가자에게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백양사 휴게소는 티슈와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는 고객사랑 이벤트를 벌인다. 정읍 휴게소는 '떡메치기 시연'행사를 비롯한 '서예가 초청 가훈 써주기' 등 고객참여 이벤트를 연다.

◇차량 고장, 당황하지 마세요=도로공사 호남본부는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이 고장 날 경우 안전지대로 차량을 무료로 이동해 주는 '긴급구난 릴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각 휴게소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벌인다. 문의 (062)570-7114. /이종행 기자 golee@

"귀성 24일 오전 귀경 26일 오후 피하세요"

올 추석에는 24일 귀성길과 26일 귀경길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귀성시에는 오전 6시~9시, 귀경시에는 정오~오후 6시에 출발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시 서울~광주가 7시간 정도 걸리며, 귀경시에는 8시간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전국의 지역간 이동인원은 4천624만 명, 1일 평균 661만 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평시보다 114.4%가 증가한 수치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4%, 시외·전세버스 10.7%, 철도 2.8%, 고속버스 1.2%,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4%와 0.5%로 추정됐다.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2천38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가 늘고 이 가운데 수도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440만대에 이를 예정이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29.7%로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고 서해안선 17.2%, 중부선 8.7% 순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